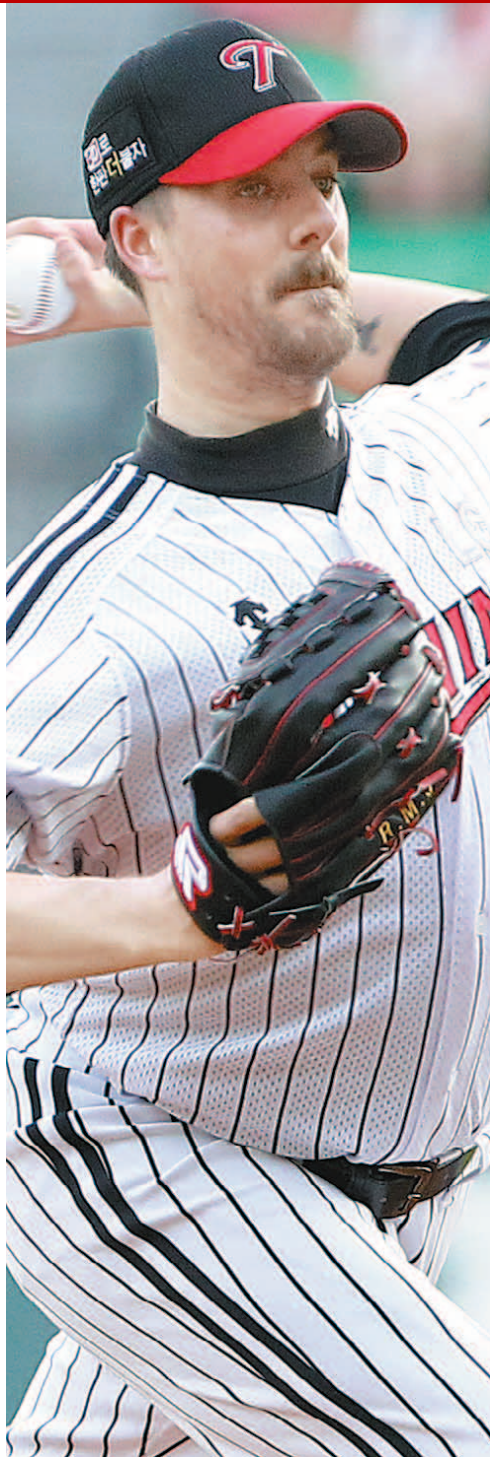


일본야구가 노리는 4인…니퍼트 주키치 윤석민 이대호



일본 프로야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선수들. 왼쪽부터 두산 니퍼트, LG 주키치, KIA 윤석민, 그리고 유일한 타자인 롯데의 이대호.

스포츠동아DB

203cm 폭포수 직구 니퍼트 1순위

빠른직구 제구력 안정…가장 큰 관심
투구폼 인상적인 주키치 뒤늦게 주목
윤석민 보려 ML·日 관계자들 북새통
타격 만족 이대호 수비 면밀히 검토
관중석에 몰려 숨어 선수들 체크해

일본구단이 또다시 한국 용병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케이스포츠는 6일 “한신이 두산 니퍼트의 영입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비단 니퍼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일본야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6일 “두산 니퍼트를 비롯해 LG 주키치, SK 고든 등이 일본 주요 구단 영입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다”며 “한국 투수로는 KIA 윤석민, 타자로는 올시즌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롯데 이대호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일본구단이 한국 용병들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리오스, 우즈, 그레이싱어 등 한국프로야구에 한 획을 그었던 많은 선수들이 속속 일본으로 건너갔다. 메이저리그에서 곧바로 낮은 일본리그로 넘어오는 것보다 비슷한 환경인 한국에서 적응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올해도 8월부터 요미우리, 한신,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구단 스카우트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했다. 타격 1순위는 역시나 용병. 특히 올 시즌 한국리그 용병투수들의 활약이 뛰어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본 다수의 구단이 니퍼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3cm 장신에서 떨어지는 빠른 직구가 위력적이고 떨어지는 볼(투심패스트볼, 커브)을 가지고 있다. 제구력도 안정적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키치의 상황은 달랐다. 처음부터 주

목받은 니퍼트와는 달리 리스트업이 뒤늦게 된 경우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키치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회소가치가 있는 좌완에 볼도 빠르고 무엇보다 공을 숨겼다가 끌고 나오는 특유의 투구폼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프트뱅크의 경우 주키치의 투구를 보기 위해 지난 주말 조용히 잠실구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고든은 체격조건은 크지 않지만 제구력과 빠른 리그 적응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

물론 한국 선수들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실제 지난달 5일 SK전에 등판한 KIA 윤석민을 보기 위해 무려 4개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과 일본측 관계자들이 문학구장을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한화 류현진도 마찬가지다. ‘한국산 괴물투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 해외진출자격을 얻는 7년이 되기 전부터 사전접촉하려는 구단이 있을 정도다.

타자로는 이대호가 집중 조명 대상이다. 그는 이미 일본내에서도 ‘정확도가 높

으면서 파워까지 갖춘 타자’로 평판이 자자하다. 이 관계자는 “타격존이 넓고 변화구 대처가 좋다. 공을 정확히 맞히면서도 홈런을 많이 때려낸다”며 “일본구단이 용병타자에게 바라는 건 잘 맞는 것보다 필요할 때 큰 거 한 방을 쳐주는 것 아니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대호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비다. 퍼시픽리그에는 지명타자가 있지만 센트럴리그는 없다. 즉,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야 윤석민의 폭이 넓어진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수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야구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스카우트들은 형식적인 방문일 경우가 많다. 이미 시즌 초부터 주요 선수들의 성적을 꾸준히 체크하고 관중석에서 몰래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본 후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편집 | 김민은 기자 kne81@donga.com 트위터 @ed_silver

말씨 하나까지 조심 조심 이만수의 사투리 콤플렉스



“글로버는 내일(7일) 불펜피칭을 보고 여울(늘을) 생각합니다. 아 이거 사투리가 계속 나와서 ….” SK 이만수 감독대행(사진)은 대구중앙초~대구중~대구상고를 졸업하고, 삼성에서만 16시즌을 뛰었다. 말투에는 지역 색이 짙게 배어있다. 코치시절만 하더라도 사투리를 크게 의식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취재진과 인터뷰할 기회가 많은 사령탑이 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냥 편하게 하리라”는 방송관계자의 조언에도 ‘표준어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취재진과 편하게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도 마친가지였다. 자연히 말투는 다소 딱딱해졌다. “우리 아이들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나를 원망도 하지요. (웃음)” 6일 목동 넥센전을 앞둔 SK 이만수 감독대행은 절친한 사이인 넥센 김시진 감독을 찾았다. 김 감독은 “(힘들어도) 이것저것 익숙해질 것”이라며 위로했다.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초보 사령탑 ‘월크’. 첫 출발부터 이래저래 상처를 많이 받는 탓에, 그는 팀 성격부터 ‘말씨 하나까지’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목동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차우찬-매티스-저마노 삼성 PO 1~3선발 낙점

차우찬(24), 덕 매티스(28), 저스틴 저마노(29). 삼성 류중일 감독이 꼽은 포스트시즌 1~3 선발이다. 등판 순서는 미정이지만 일찌감치 ‘큰 경기용 선발 투수’로 낙점을 받았다. 류 감독은 6일 대구 한화전에 앞서 “차우찬과 두 용병이 포스트시즌에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네 번째 선발은 윤성환과 장원삼 중 한 명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한국시리즈 선발진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에이스로 부상한 용병 매티스에 대해 “직구 구속이 140km대 초초반에 불과하지만 제구가 무척 안정됐다. 볼끝이 지저분해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칭찬했다. 포 2위 롯데와의 사직 등판에서 부진했던 저마노에 대해서도 “등판 전날 잠을 잘못 자서 목에 통증이 있었던 데다 수비 실책까지 겹쳐서 뿐,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팔꿈치 통증으로 2군에 있는 차우찬은 이번 주말 복귀해 본격적인 포스트시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뒤편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삼성. 세 선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대구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이승엽 2안타…주루센스 돋보이네!

오릭스 이승엽(35)이 타격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는 6일 일본 K스타미야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원정경기에서 6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7월 26일 니혼햄전 이후 42일 만의 멀티히트.

이승엽은 지난달 25일 세이부전에서 1일을 제외하고 매 경기 안타를 생산해냈다. 이날도 2회 1사 2루에서 상대 선발 이와쿠마의 초구를 공략해 2루수의 글러브에 맞고 뒤로 흐르는 내야안타를 만들었다. 3·0으로 앞선 6회 1사 1루에서도 깨끗한 우전안타를 때려내더니 1사 1·3루에서 아카다의 2루 땅볼 때 1루로 귀루하는 모션을 취하며 야수들의 시선을 빼앗았고 3루 주자가 홈을 밟을 시간을 버는 재치를 발휘했다.

한편 야쿠르트 임창용은 요코하마 원정경기에서 8·3으로 앞선 9회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경기를 종료했다.

홍재현 기자

삼성, 오승환 200S 시상식서 5000만원 등 전달

삼성이 6일 대구 한화전 클리닝타임 때 마무리 오승환의 역대 최연소·최소경기 200세이브 달성을 기념하는 시상식을 열고 오승환에게 KBO 총재가 시상하는 기념 트로피와 구단 격려금 5000만원, 그룹 격려품인 스마트폰과 기념 액자 등을 수여했다. 또 류중일 감독과 오승환의 부모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송지만 프로통산 6번째 1000득점 기록

넥센 송지만이 6일 목동 SK전에서 프로통산 6번째로 1000득점을 기록했다. 2회 중전안타로 출루한 송지만은 후속 타자 강정호의 2루타때 홈을 밟았다. 이로써 송지만은 장종훈과 양준혁에 이어 프로통산 3번째로 300홈런-1000타점-1000득점의 위업을 달성했다.

■ 숨은기록찾기 (6일)

●두산 니퍼트 국내 데뷔 후 LG전 3연승 무패 ●LG 원정산 한화 시절부터 홈 6연패(2010년 4월 30일 대전 삼성전 이후) ●넥센 송지만, 프로통산 6번째 1000득점 ●넥센 송지만, 프로통산 3번째 300홈런-1000타점-1000득점 ●넥센 알도르티 3연속경기 홈런 ●삼성 김상수, 데뷔 첫 세 자릿수 안타

■ 엔트리노트 (6일)

●등록=채상병 신명철 조영훈 김경모 박한이(이상 삼성), 페르난도 김강률(이상 두산), 조평호(넥센)

올시즌 도루저지율 1위…양의지의 화려한 변신

지나해 저지율 0.248…스트레스 심해
흑독한 훈련·어깨통증 없어 송구 자신

두산 양의지(24)는 지나해 공격형 포수로 주목받으면서 신인왕에 올랐다. 그러나 도루저지율은 매우 저조했다. 총 133차례 도루 시도 중 33차례만 저지에 성공했다. 무려 100차례나 도루를 허용해 도루저지율이 0.248에 불과했다. 거꾸로 해석하면 도루를 시도한 주자는 75.2% 살았다는 의미다.

물론 도루를 전적으로 포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투수의 투구동작과 견제능력이 상대주자를 묶어두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0.248 정도의 도루저지율이라면 포수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포수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수치다.

그러나 올 시즌 그의 도루저지 능력은 그야말로 괄목상대다. 6일 잠실 LG전까지 도루저지율이 무려 5월에 육박하는 0.485에 이른다. 8개구단 포수 중 1위다. 103차례 도루 시도 중 50차례나 잡아냈다. 이젠 상대주자들도 거의 둘 중 하나는 아웃되고 있어 쉽게 도루를 시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런 변신이 가능했을까. 6일 LG전에 앞서 비결을 묻자 양의지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우선 풋워크가 빨라지고 공을 빼내는 동작이 간결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청 시절부터 추운 겨울만 되면 괴롭히던 어깨 통증이 사라지면서 송구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김태형, 강인권 코치의 지도로 도루저지에 신경을 쓰면

서 정말 많은 훈련을 소화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풋워크인 것 같다. 강한 송구보다는 타이밍이다. 발과 손이 빨라지는 게 도루저지를 위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해까지는 도루저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올해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홈런이 안 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웃었다. 그는 지난해 20홈런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 4홈런에 그치고 있다. 대신 타율은 지나해 0.267에서 팀내 1위인 0.311로 크게 뛰어 올랐다.

장실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 도루하기 쉬운 ‘만만한 포수’에서 1년만에 주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안방마님으로 변신한 두산 양의지.

스포츠동아DB

